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94 비전2000운동 발대식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에

‘만민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자’는 ‘94 비전 2000운동’이 오늘 발대식을 갖고 50일간의 행진을 시작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지만, 이 기간 중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며, 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평소에 잘 실천하지 못한 전도와, 전도를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려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

▶ 발대식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발대식을 가진다. ‘94 비전 2000운동’을 위해 임명 받은 실행위원들이 찬양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순서를 가진다.

▶ 현판식

주일 Ⅲ부 예배가 마친 후(오후 3시 30분), 4층 교역실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현판식 후에는 간단한 다과회와 부서별 실행위원 모임도 갖는다. 진행부에서는 ‘94 비전 2000운동’기간 동안 상황실이 될 4층에 매주 전도실적과 일정별 행사진행 상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상황판을 설치하였다.



▶ 태신자 카드 제출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작성한 태신자 카드는 오늘 I, II, III부 예배 헌금시간에 헌금주머니에 제출한다.

▶ 정오의 기도

비전 2000 기간 중 정오에는 어느 곳,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비전 2000운동의 결실을 위해, 태신자와 교회를 위해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 새벽전도학교

10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6일간은 특별 새벽기도와 교구별 전도훈련을 실시한다. 40분간의 새벽기도회 후에 그날의 주력교구는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전도훈련을 받고 축조전도, 노방전도 등으로 복음을 전한다.

▶ 연속 기도회

남선교회는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8시 - 9시에, 여전도회는 화, 목, 금, 토요일 오전 11시 - 12까지 선교회별, 전도회별로 교회에서 모여 기도회를 갖는다. 기도회에서는 비전 2000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배부받은 기도카드에 날인하여 기도회 참석회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후에 시상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94 비전2000운동

금주의 주요 행사 일정
(10월 2일 - 10월 8일)

주일(2일)	월요일(3일)	화요일(4일)	수요일(5일)	목요일(6일)	금요일(7일)	토요일(8일)
태신자카드제출 (낮예배)	새벽전도학교(6:00 - 7:00, 1층 예배실) (1, 2교구) (3, 4교구) (5, 6교구) (7, 8교구) (9, 10교구) (11, 12교구)					
현판식 (15:30)	여전도회 기도회(11:00 - 12:00, 2층 예배실) - (마리아) (수요예배) (루디아) (에스터) (하나)					
발대식 (찬양예배)	정오의 기도(12:00) / 어디서든지, 우리 모두 남선교회 기도회(20:00 - 21:00, 2층 예배실) (요한) (베드로) (수요예배) (바울) (모세) -					



'94 교사체육대회

10월 3일(월) 오전 9시 30분까지, 성북구민회관 실내체육관

-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야 -

교회학교 교사체육대회가 더욱 힘써 태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벧후 1:10)는 주제 아래 10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북구민체육관에서 열린다. 피구, 탁구, 배구 등 운동 경기를 통해 11개 교회학교 교사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교회학교별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체육대회에는 교사와 교사 가족 그리고 특별히 '95년도 교사 지망 성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준비와 점검을 위해 9시 30분까지 입장을 완료하되 실내 체육관이므로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새가족환영회, 10월 6일(목) 오후 7시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6월 19일 이후 등록자와 인도자가 한자리에 -

1994년 6월 19일 이후 우리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과 새가족을 인도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I부에 예배를 드린 후, II부 순서로 식사와 친교 등의 순서를 통해 우리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역자와 교구 일꾼들과도 인사하면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지침을 소개 받는다. 그리고 새가족의 간증을 듣는 순서도 가진다.

10월 6일(목) 오후 7시 유년부실에서 한다.

(주최 / 새가족부)

창세기
강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

이 중 윤 목사

창세기 공부를 해 오면서 12장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연만물에 질서와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법칙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 우리도 부르시는데,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일련의 원리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확인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부어 주시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단계입니다.

조카 롯을 찾기 위해 전쟁에 나섰던 아브람은 승전하고 돌아오지만 그들의 역습을 두려워하며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15:1).

위의 말씀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혹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신만 아는 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대주재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보호자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방패가 아닌 ‘너의’ 방패라고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육신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의 시기를 받아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목자장이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끄시니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I shall not want.)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높은 망대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찬양합니다(삼하 22:2-3).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탄(벧전5:8)을 우리 힘으로 대적하려한다면 백전 백패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약4:7). 욕의 인내를 기억해 봅시다.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니 날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방패가 되시어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외적인 전투 뿐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내적 고통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분량의 것이거나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고전10:13).

그 시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해 유용한 것이기도 합니다(벧1:12).

아브람의 방패였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안팎의 시험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2.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구한다면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모두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은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천지의 대주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롬8:17)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도, 그 위대하신 사랑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복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충격

자유, 평등, 박애정신을 모토로 한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주의 사회를 붕괴시킨 18세기 불란서 혁명은 당시 민중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현실 문제에 외면하고 세속적 안일을 추구하고 귀족화 되어가던 교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사회 평등을 통한 유토피아를 선언한 19세기의 ‘공산당 선언’ 역시 기독교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지 못한 교회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19세기 말 니체의 무신론 사상을 비롯한 합리주의 정신과 천박한 낙관주의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동은 영원한 신관과 종말론적 교리를 갖고있던 기독교에게는 무서운 도전이었다.

오늘 극악한 범죄와 불의로 가득 찬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밀물하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교회는 또 한차례 뒤통수를 얻어 맞는 것이 아닐까.

오늘의 불신, 불의, 불충의 죄를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다.

1. 밀턴은 어떤 인물인가?

밀턴(John Milton, 1608 - 1754)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한 후 사제가 되려다가 고향인시골로 돌아와 시를 쓰기도 했으나 청교도 혁명 이후 올리버 크롬웰 정부에 들어가 라틴어 비서관으로서 일을 한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이혼을 거듭하고 세번이나 결혼했던 불행을 맛보았으며, 정치적으로도 플라톤의 이상국가관에 따른 공화국에 대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혁명분자로 몰려 옥살이를 하는 비운의 인물이었다. 평생 통풍으로 시달렸으며 43세(1652)에 실명(失明)함으로 몸의 시련마저 겪어야 했기에 '시련의 시인'으로 불리우는 밀턴은 어떤 인물인가?

1. 청교도적 이상주의 시인이다. - 청교도주의(Puritanism)를 간단히 정의하면 칼비니즘의 5대 강령이 밀반침이 된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적의 신앙적 가치관과 경건생활(주일 엄수, 기도생활), 양심을 바탕으로 한 윤리생활, 절제와 인내의 생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밀턴은 신의 절대주권과 인내의 생활을 형상화하고 있다.

2. 크리스천 휴머니스트다. - 크리스천 휴머니즘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으로 내세우는 기독교적 인문주의를 말한다. 이 사상 안에서 신앙과 이성, 성경과 고전이, 은총과 노력이, 영원과 시간이 통합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실락원」의 기초가 된다.

2. 「실락원」은 경건과 교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실락원」과 「복락원」은 밀턴의 서사시로서, 영문학사상 최대의 걸작일 뿐 아니라,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 기독교 문학상의 두 기둥을 이루는 숭고무비한 고전이다.

일찌기 밀턴은 그리이스의 호메로스와 로마의 베르길리우스의 위대한 전통을 숭배하는 대서사시를 쓰려는 용지를 다듬고 있었으나, 당시 크롬웰이 이끌던 청교도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참여한 공화제의 실패와 실명이라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일선 정치 생활에서 은퇴하고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한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실락원」과 「복락원」이다.

「실락원」의 근거가 될만한 자료는 매우 방대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창세기 1 - 2장의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 천사들의 싸움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목회자세미나 현장 스케치

9월 26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밀턴과 그의 저서 「실락원」

강사 / 조 신 권 박사(연세대)

서사시에는 이러한 성서의 구절들이 수없이 삽입되어 있고, 또 고전에 정통한 학자라도 현혹을 느낄 정도로 번거롭게 그리이스, 로마의 고전과 그 밖의 여러 사상에 대한 지식이 나열 또는 인용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일반 독자로서는 쉽게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험사리 접근하고 공감할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밀턴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성서적 주제를 다룰 때 흔히 빠져들기 쉬운 단색(單色)의 빛에다 고전의 깊은 맛을 가미해

준 데 있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인간의 운명과 신의 섭리라는 장대한 문제를 고전적 전통의 빛을 가지고 조명해 줄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실락원」의 문학성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기도의 문학 - 「실락원」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밀턴은 「실락원」을 쓰면서 네번이나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기도를 드린다. (제1권 1 - 26행, 제3권 1 - 55행, 제7권 1 - 47행, 제9권 1 - 47행)

2. 낙원상실의 문학 -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복종한 결과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광야에서 사는 인생은 그때부터 나그네(wayfarer)가 된다. 나그네 인생길은 늘 악과 대면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전투자(warfarer)의 길로 정의될 수 밖에 없다. 홀로 가며 악과 더불어 싸워나가야 하는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죄와 구원의 문제를 명쾌하게 형상해 주고 있는 작품이 「실락원」이다.

3. 지혜의 문학 -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끝없이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인간 존재의 가벼움, 덧없음, 연약성 같은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간은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그를 의지함으로써 살 수 있다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것이 지혜이다. 지혜문학의 성격은 깨달음을 준다는 데 있다.

4. 경건의 문학 - 경건은 두 가지 본질적인 특징을 지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요일 3:22 이하). 이런 경건의 개념들을 가장 고전적인 이미지로 잘 형상화해 주고 있는 작품이 「실락원」이다. 그러므로 좀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락원」을 읽으면 경건의 모양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능력도 또한 생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발이 잘 일구어져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경건이요 교양이다.

■ 순례 길에 만난 사람 ■

성극 선교단을 구상하고 있는 김옥겸 성도



받은 바 달란트를 계발하여 「성극(聖劇)」을 통한 선교」에 뜻을 키우는 김옥겸 성도.

73년도부터 시작하여 일반 극단의 연극배우, EBS의 성우 등으로 활약하였으나 83년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성극만 공연하면서 수화 뮤지컬 극단인 「빛 선교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그간 국내 뿐 아니라 순회하면서 600여 회의 성극공연을 하였는데,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가 공연을 매개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극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일을 해 왔다.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사랑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작년 전가족수련회 때의 성극과 지난 크리스마스에 사랑부 성극을 연출함으로써 우리에게 그의 달란트를 맛보여 준 적도 있다.

비전 2000운동의 일환으로 「호세아」공연 예정
김옥겸 성도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듣

게 하자는 이번 「비전2000운동」기간에 뮤지컬 「호세아」를 공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10월 30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에 공연할 예정인 이 뮤지컬은 호세아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음악과 연극으로 구성한 것이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이미 믿은 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이번 작품의 연출은 김옥겸성도가 직접 맡았다.

선교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을 기다리며

뮤지컬 「호세아」의 공연 날짜와 세부 계획은 이미 정해졌으나 출연진을 모집 중이다.

이번에 공연할 뮤지컬 「호세아」를 위한 연습은 공연 전까지 매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에 한다. 뜻이 있는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지원 문의 / 교역자실)

태신자를 작정한 교우들에게 “일단, 승리하셨습니다”

- 매일 아침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새벽기도회 시간에 참석하여)
- 매일 식사 기도 시간에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 매일 정오에 태신자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 예배시간, 정기 모임, 다락방 모임 때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 태신자와 만날 약속이 가능하도록 기도합니다.
- 태신자와 만남시다.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
- 태신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연구합니다.
- 태신자에게 교회 출석을 권유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태신자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찾아나섭시다.

- 가족, 친척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나 돌아봅시다.
- 이웃에 새로 이사 온 가정을 찾아가 봅시다.(부동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마음이나 육신이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 다락방 식구들 중에서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은 분들을 초청합니다.(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합니다)
- 70인 전도단과 축초전도팀, 노방전도팀, 병원전도팀, 심야전도팀 등 팀별 활동에 합류하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 합니다.
- 등록은 4층 당회실에서 합니다.
- 해당연령의 교회학교나 선교회, 전도회에 가입하시면 교회 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불신, 불충, 불의를 용서하사 우리 사회적인 아픔이 치유되도록
2. 비전2000운동이 알차게 결실하도록
3. 태신자를 위하여

비전 2000기도제목

- 복음 전할 기쁨과 사명을 주옵소서.
- 복음전할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 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 북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옵소서.
- 한국교회 갱신운동이 복음증거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 비전 2000운동으로 다락방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민족적 대각성운동을 촉구하게 될 한국 교회 원로목사 간담회 10월 7일(금) 우리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임옥 목사)는 작금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희망의 기회로 삼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경향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보고 41개 가맹교단에 속한 한국교회의 원로목사들로 하여금 민족적 대각성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오는 7일(금) 우리 교회에서 한경직 원로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한국교회 원로들이 모임 이 모임에서는 죄를 짓고도 “주여, 내니이까?”하며 가증스러운 질문을 던진 회개치 못한 가룟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회개를 하면서 아울러 조국 통일 시민 생활운동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기총 위원장 회의도 개최되는데 이종운 목사는 동회 교회발전 위원장의 자격으로 10월 4일(화)에 여전도회관에서 발제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 10월 14일, 벽산빌딩에서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특히 교회 사찰, 사무원 등 가능한 업무를 장애인에게 맡겨서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28개 교단과 8개 기관이 연합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4일(금) 서울역 앞 벽산빌딩에서 개최될 이 대회에서 이종운 목사는 개최설교를 한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특강 지난 29일과 30일, 『새 시대, 새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다. 첫날은 송재천 교수(장신대)가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를, 둘째날은 오인택 교수(연세대)가 <교회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였다.

강의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교회학교 교사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임과 맡겨진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고후10:5)”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